

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생공영공의주의에 대한 다층적 접근의 교육역할과 방향

정 시 구

선문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생공영공의주의에 대한 다층적 접근으로 교육적 역할과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서 윤리적·정치적 양극화로의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비의 확대가 경제를 침체시키고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한다. 만약에 신자유적 시장자본주의 만을 용인한다면 정부의 최종적 역할은 매우 한정된 실패자의 구제만을 보장할 뿐 양극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종교교육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사회공동체의 윤리적·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생공영공의주의의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생주의는 하나님의 개체(개성)완성의 교육을 통하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동소유와 평화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기여하는 사상이다. 둘째, 공영주의는 주관성완성 교육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천재가 되고, 만인이 참여하여 양심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공동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상이다. 셋째, 공의주의는 하나님의 가정완성 교육을 통한 선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류대가족’이라는 전 인류의 공동목표를 추구하여 윤리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사상이다. 끝으로 공생공영공의주의를 통하여 양극화 현상 극복에 있어서 교육학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 양극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I. 문제제기

본고는 2016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대 주제인 ‘우리시대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맞추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로 표기)에서 제시한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서 윤리적 양극화로 복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¹⁾ 최근 두 딸을 가진 이혼녀가 생활고로 이웃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어린 딸을 양녀로 보냈는데 그 딸이 양부모로부터 비참하게 살해당했다.²⁾ 이 사건에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양극화(polarization)의 불행이 인간의 잔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한 ‘윤리파괴’라는 끔찍스런 사건으로 이어졌다. 통일사상에서 윤리에 대한 정의는 연체(聯體)로서의 규범인 동시에 가정완성을 위한 규범이므로, 윤리적 양극화란 가정공동체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의 정상과 비정상의 극단적 상태를 뜻한다.³⁾ 인간 공동체는 자유와 평등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그것은 관용과 겸손과 같은 윤리적 측면에 의해 완성된다.⁴⁾

소득양극화의 준말로도 해석되는 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소수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저소득층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절대소득은 증가하지만 상대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경제주체들 간의 위화감이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소외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의 양상으로도 전개된다.⁵⁾ 이러한 현상은 중세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함으로써 ‘밝은 이성’과 ‘어두운 욕망’이라는 양극화의 근본적 딜레마에서 비롯됐다. Kant는 이러한 딜레마를 의식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인간의 윤리성이 그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한 책임성을 강조했다.⁶⁾ 행위자의 자율성에 근거한 책임귀속은 공동윤리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정치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치적 책임성과 윤리성의 붕괴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냉전체제 이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바람을 타고 해외시장의 급성장함으로써 기업을 중심한 자본가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1) 조기룡,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교단의 역할: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대각사상』제19집(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3), 178쪽.

2) <온몸 테이프를 묶어 17시간 방치, 생모에게는 “실종됐다”>, 《세계일보》, 2016년 10월 4일자, 제10면.

3) 위의 책, 393쪽.

4) 남태욱, 「자유와 평등의 기독교 사회윤리적 함의: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정의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제12권1호(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7), 9쪽.

5) 김동원, 『노동양극화: 일자리 격차와 노동개혁』(서울: 국회도서관, 2015), 14-17쪽.

6) 허유선, 「칸트 윤리학의 행위자 중심성과 공동체 윤리로서의 효력」 『철학사상문화』제19호(서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5), 15-18쪽.

이러한 심각한 양극화를 촉발케 한 신자유주의는 공존과 고용을 확대시킨 수정자본주의(일명 케인스주의) 이후에 동구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 속에서 힘을 얻어온 시장경제의 흐름이다. 자본주의의 극단적 흐름인 신자유주의의야말로 오늘날 전 지구에 걸쳐 실제적인 ‘신흥종교’의 역할을 한다. 신자유주의에는 보이지 않는 ‘강제의 손’이 작용하고, 피할 수 없는 ‘경쟁’이 ‘자유’라는 이름을 입고 전면에 등장했다.⁷⁾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지 않으면 윤리적·정치적 부패수준은 심각해진다.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조직화할 수단이 없다. 정치인들은 정책적 경쟁보다는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수준이 심할수록 특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므로, 소수 엘리트들이 뇌물 등을 통해 부패를 키울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진다.⁸⁾ 이처럼 양극화 현상은 부패 불감증에 빠져들게 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사회적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재정의 확대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비의 확대가 경제를 침체시키고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적 시장 기능 만을 용인한다면 정부의 최종적 역할은 매우 한정된 실패자의 구제를 보장하는 식으로 시설생활과 공공부조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 개인의 자립·자조·책임감은 물론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사회공동체의 윤리적·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가정연합의 공생주의(共生主義)·공영주의(共榮主義)·공의주의(共義主義)(이하, 3가지 주의를 합쳐서 ‘공생공영공의주의’로 표기) 사상은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측면에서 다층적 접근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생공영공의주의는 가정연합의 미래 사회에 대한 이념을 말하는 것이며, 포괄적으로 가정연합의 정치사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생공영공의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인간에 대한 ‘3대축복’과 같은 창조이상을 완성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⁹⁾ 이에 본고는 공생공영공의주의에서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교육학적 역할과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양극화 현실과 그 극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Ⅱ), 이어서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공생공영공의주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고(Ⅲ), 끝으로 공생공영공의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정연합의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Ⅳ).

7) 이찬수, 「탈폭력적 폭력: 신자유주의 시대 폭력의 유형과 종교」 『종교문화연구』제23호(서울: 한신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4), 309-312쪽.

8) Jong Seong, Ryu,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Korea, Taiwan and Philippines Compared*, 김재중 역,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서울: 동아시아, 2016), 23-39쪽.

9) 공생공영공의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2001), 761-784쪽에서 살펴볼 수 있다.

II. 양극화 현실과 선행연구

1.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실

한국의 2015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 Center for Economics & Business Research)에 의하면, 1조4천100억 달러로 세계 경제규모 순위에서 11위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경제순위에서 상승하여 오는 2030년에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15년 내 한국 경제가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등을 추월한다.¹⁰⁾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한 양극화는 소득, 기업, 노동, 교육, 윤리, 정치 등에서 복합적으로 겪고 있으며, 최근의 대통령 탄핵정국을 더욱 부채질한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평가의 하나인 Piketty방식으로 본 상위 일정 비율과 하위 일정 비율의 격차는 사람이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심각하다. 즉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분기 국내 소득 상위 10% 가구(2인 이상)와 하위 10% 가구의 경계소득 배율은 5.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이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6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낮아져 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5.2에서 2014년 4.9, 2015년에는 4.6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반등한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상위 10% 그룹의 자산은 국민 전체 자산의 43.7%를 보유하는 반면, 하위 4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 자산의 5.9%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간 소득층의 비중은 1990년대 전반의 평균 75.9%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66.3%로 낮아진 뒤 2014년부터 70.0%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의 조사를 보면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¹¹⁾

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저소득층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벌기도 막막한데 비용지출이 많은 사교육에 들일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포기하는 형편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학교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학교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이미 우리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신분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학생의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수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는 학교교육의

10) <한국, 경제규모 2015년 세계 11위→2030년 세계 7위>, 《연합뉴스》, 2015년 12월 27일자, 제1면.

11) <고개드는 양극화, 노인 소득절벽 어찌나>, 《이데일리》, 2016년 8월 22일자, 제1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서울: 보건복지부, 2014), 391-393쪽.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재생산 내지 고착화 기능을 수행한다. 미취학 교육과 초등학교에서 이른바 ‘황제 사교육’이 가능한 30대 부모의 계층은 당연히 상속이나 윗세대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¹²⁾ 교육비 지출에서의 양극화 현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은 자괴감으로 이어지며 윤리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Marx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약화시키는 해독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계급투쟁을 통해 얻는 정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투쟁과 노동자의 혁명을 주창했다.¹³⁾ 이러한 Marx의 주장이 현재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복지의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동안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학계에서는 어떤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종교학계의 선행연구

2010년 정치철학자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종교학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의 극복은 당연히 중요한 주제가 됐다. 그런데 필자는 양극화 현상 극복과 관련하여 교육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별로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종교학계에서 연구된 양극화 현상 극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종교교육학적인 함의를 살피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종교학계의 양극화 현상 극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양극화에 관련하여 실제로 고용활성화정책, 봉사지원활동,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의 긍정성과 기회균등이라는 윤리적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구경향이다.

본고의 연구목적상으로 관련이 깊은 후자의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독교계의 김성건(2013)은 IMF 사태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개신교의 대응에서 보수교단의 빈곤문제와 양극화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¹⁴⁾ 개신교도의 약 90% 가량이 신학적으로 정통 지향적 보수로 사회의식도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한계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선진적 성령운동’을 제시했다. 또한 김성건은 총체적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사회적 책임’을 다

12) 조상식,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교육학적 서평: 세습자본주의의 도래와 교육 불평등의 디스토피아」 『교육비평』 제34집(서울: 교육비평, 2014), 243-262쪽.

13) G. V. Rimlinger,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New York: Wiley, 1971), p.123.

14) 김성건, 「IMF 사태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개신교의 대응: 보수교단의 빈곤문제와 양극화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제』 제56권(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310-313쪽.

하는 성령운동이라고 지적했으며, 한국교회가 역사 속에서 관료적 구조화로 변한 모습에서 탈피하고 ‘깊이 없는 성장’을 성찰하여 사회와 나눔의 봉사를 강조했다.¹⁵⁾

그리고 콕미숙(2010)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노미적 사회체제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한 양식으로서 발생한다고 평가했다.¹⁶⁾ 연구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의 아노미적 사회체제의 현실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한국 개신교의 아노미적 상황이란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래적 모습이 왜곡·상실되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황봉환(2013)은 오늘날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종교적 위기는 아모스 시대와 같다고 전제하고 종교계에서 먼저 경제적 불의를 몰아내고 종교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⁷⁾

불교계에서의 조기룡(2013)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불교교단의 역할을 제시했다.¹⁸⁾ 즉 불교의 중도사상, 분배의 평등, 공동체의 화합, 연기에 기인한 공생 등과 같은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사회의 모든 문제를 양극화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불교계의 NGO활동을 통해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빈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불교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야 한다.

유승무·임운택(2011)은 사회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불교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불교 정전에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자비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¹⁹⁾ 그러나 불교식의 개입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종교계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대안도 중요하다. 또한 선혜영(2012)은 평등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의 분배의 문제를 논의했는데 서양의 전통적인 공리주의가 복지사회를 희망했지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결점을 지적했다.²⁰⁾ 특히 미래 행복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이론이나 체계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개방적인 윤리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8권(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13), 37-42쪽.

16) 콕미숙,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성찰」 『신학논단』 제59권(서울: 연세대학교신과대학, 2010), 25-57쪽.

17) 황봉환, 「아모스 시대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종교적 정의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1권제4호(서울: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3), 169-171쪽.

18) 조기룡, 앞의 글, 178쪽.

19) 유승무·임운택, 「사회불평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불교적 정당성」 『동양사회사상』 제23권(서울: 동양 사회사상학회, 2011), 157-158쪽.

20) 선혜영, 「평등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의 분배의 문제」 『종교문화학보』 제9집(경주: 한국종교문화학회, 2012), 139-140쪽.

<표 1> 종교계의 양극화 극복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구체적 내용	연구의 차별성
김성건(2013)	빈곤문제와 양극화	기독교계의 보수적 대응	성령운동 사회윤리
곽미숙(2010)	자살에 대한 신학적 고찰	아노미적 해체와 기독교 본질의 상실감	교계 지도자 윤리성 회복
황봉환(2013)	언약 공동체 몰락	아모스 시대와 현대의 유사성	공동체 윤리성
조기룡(2013)	양극화에 대한 불교교단의 역할	불교의 양극화 해소 사상적용	분배정의 공동윤리 관심
유승무 · 임운택 (2011)	사회불평등	국가정책에 대한 불교 개입 정당성과 실천	공동체 윤리의 자비행동
선헤영(2012)	자본주의 사회 분배 문제	공리주의적 복지사회 소수의 희생에 대한 배려	최소 수혜자 배려 공동체 윤리성 회복

이상과 같이 종교학계의 양극화 현상 극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볼 때, 기독교계는 주로 선진적 성령운동과 같은 기독교 본래의 공동체 윤리성의 회복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중도사상, 연기에 기인한 공생, 자비심과 배려 등과 같은 교육방법으로 양극화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정연합에서도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장학재단 운영, 대북지원사업과 같은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생산과 환경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생공영공의주의 사상을 경제적·정치적·윤리적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양극화 극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생공영공의주의 교육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Ⅲ. 공생공영공의주의 교육

1. 통일교육²¹⁾과 공생공영공의주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며(창세기1:27), 창조가 끝난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만물을 주관하라”(창세기1:28)는 3대축복을 내리셨다. 이것이 교육의 근거가 된다. 즉 교육이란 하나님을 닮도록 자녀를 양육·인도·노력하는 것이다. 3대축복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생육하라”(제1축복, 개체완성), “번성하라”(제2축복, 가정완성), “주관하라”(제3축복, 주관성완성) 등의 3가지다.²²⁾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3대축복을 완성한다면,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이상세계는 성

21) 본고에서 사용된 ‘통일교육’이라는 단어는 남북통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2001)에서 쓰인 ‘통일교육론’의 교육철학을 말한다.

취되며, 현재의 양극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양극화 극복과 관련하여 기존의 통일교육과 공생공영공의주의에 대한 것을 『통일사상요강』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인간의 개체완성을 위한 교육은 하나님의 심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와 성(性)에 해당되는 경제적 측면의 교육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체완성을 위한 심정교육은 생심(生心, 마음)과 육심(肉心, 몸)이 하나가 되는데 있기 때문이다. 생심은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고, 육심은 의식주(경제) 및 성을 추구한다.²³⁾ 인간의 경제적 갈망은 육심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생주의’에 근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²⁴⁾ 인류의 갈등·전쟁과 같은 모든 문제는 ‘소유욕망’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사랑을 터로 한 공생주의적 ‘공동소유정신’으로 될 때 가정, 종족, 국가, 세계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해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인간 육신은 만물처럼 원리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성장하지만, 영인체는 책임분담을 완수할 때만 성장한다.²⁵⁾

둘째로, 인간의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은 개체완성과 밀접하며 가정공동체의 규범으로,²⁶⁾ 윤리적 양극화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은 오늘날의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에 가깝다.²⁷⁾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양음의 조화를 닦기 위한 것이며, 본연의 부부와 가정에 대한 윤리교육으로 ‘공의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상적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은 선민(選民)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 효정(孝情)·순결교육과 같은 것도 해당된다. 이와 같은 규범교육은 보통 학교에서 실시되지만 그 기반은 가정에 있다.²⁸⁾ 즉 가정이란 우주질서의 축소체로서 사회·국가·세계도 결국은 가정의 질서체계를 확대한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로 발전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윤리적 양극화 현상은 해소될 것이다.

셋째로, 인간의 주관성완성을 위한 교육은 지덕체는 물론 정치적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관성완성 교육은 만물주관에 필요한 지식·기술·체육·정치·문화·사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공영주의’는 주관성완성 교육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²⁹⁾ 주관성완성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상의 목표는 천재(天才)다. 여기서 천재란 하나님의 선한 창조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창조본연의 인간은 본래 모두 천재다.³⁰⁾ 그런데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생주의 실현을 위한 인간

22) 제1축복은 인간의 개체완성(인격완성)을 위한 교육인 심정교육, 제2축복은 가정완성을 위한 규범교육, 제3축복은 주관성완성을 위한 교육인 주관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사상연구원, 위의 책, 345-346쪽에서 살펴볼 수 있다.

23) 위의 책, 347쪽.

24) 위의 책, 762쪽.

25) 위의 책, 351쪽.

26) 위의 책, 393쪽.

27) 이재일, 「통일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종교교육학연구』제4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44쪽.

28)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347-348쪽.

29) 위의 책, 367쪽.

의 천재성은 개인의 이익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산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awls의 경우에도, 인간의 천재성에 대하여 공유자산화를 주장한 바가 있다. 즉 인간의 천재성을 공동자산으로 보고 최소 수혜자에 이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이상과 같은 통일교육으로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인간에게 맡겨진 책임분담 완성의 정도에 따라 양극화 극복에 대한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사로써 규범(윤리, 원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체휼)하도록 노력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분담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이상세계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³²⁾ 이상과 같은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통일교육론과 양극화 극복의 공생공영공의주의

통일교육론 공생공영공의주의	하나님의 인간창조와 3대축복(창1:27-28)		
	생육: 제1축복	번성: 제2축복	주관: 제3축복
교육의 이념	개체(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완성(창조성)
교육의 형태	심정교육 (참사랑교육)	규범교육 (孝情 · 윤리교육)	주관교육 (지식 · 정치교육/체육)
이상적 인간상	인격자 (개인책임분담)	선민 (가정책임분담)	천재 (개인가정국가책임분담)
양극화 극복 대안	공생주의 (경제적 공동소유), 공영주의 (정치적 가정공동체), 공의주의 (가정적 규범윤리)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3대축복에 근거한 심정 · 규범 · 주관교육을 바탕으로 공생공영공의주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양질의 인격자 · 선민 · 천재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천공행할 수 있는 의지 혹은 책임분담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3대축복은 성취할 수 없다. 이처럼 복귀된 인간의 3대축복을 위한 교육으로 인격자, 선민, 천재를 기르게 되면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공생공영공의주의 교육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공생공영공의주의가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0) 위의 책, 373-374쪽.

31)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101-102.

3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5), 64-67쪽.

2. 공생공영공의주의 교육역할방향

본고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3대축복에 대한 교육으로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이상세계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의 해소에 있다. 첫째, 공생주의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방향은 하나님의 심정교육으로 경제적인 소유의 측면을 해소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근현대에 있어서 소유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는 사적(개인적) 소유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경제는 사회적(국가적) 소유다. 그런데 양편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요건은 전혀 배제하고 있는데 사적 소유이건, 사회적 소유이건 간에 그 소유는 윤리적 요소가 배제된 단순한 물질적 소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에 반해 공생주의 개념은 모든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동소유’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여기서 공동소유란 하나님과 나와 의 공동소유이며, 전체와 나, 이웃과 나와 의 공동소유를 말한다. 이 공동소유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전으로 된 공동윤리적 개념이다. 인간의 소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참사랑에 의하여 그 참사랑이 담긴 선물과 같다. 즉 공동소유란 일정한 하나님의 재산(소유)을, 우리(나와 이웃)에게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사(下賜)하신 것이다.³³⁾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전통적으로 종교인의 신앙교육은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신앙교육과 일관성이 있게 항상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Groome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 안에서 신앙교육이 향해야 할 창조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³⁴⁾ 즉 교육의 역할이 다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생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고립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태국, 한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남미와 미국은 물론 유럽 등에서도 수백 차례에 걸쳐 발발하는 금융위기를 가져왔다.³⁵⁾

지금까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교정방법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케인스주의 정책의 위기 대응이 있었지만, 케인스주의 방안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케인스주의는 광의적 측면에서 볼 때 자본으로부터 노동의 재분배정책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은 선순환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① 증가한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탈출한다는 점, ② 노동자는 가치이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③ 이를 근거로 노동의 지출이 비록 감속적일지라도 지속되는 소비순환으로 승수에 의한 구매력을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승수효과 등을 기대한다. 그러나 자본회전율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경제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윤총량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 뿐만이 아

33)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764쪽.

34)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Story and Vis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1980), p.34.

35) D. Harvey, *The Enigma* (London: Profile Books, 2010), p.8.

나라 노동으로 이전되는 재분배 자체는 자본의 이윤율을 낮춘다.³⁶⁾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류 공동체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Piketty는 ‘글로벌 자본세’를 단연 꼽는다. 글로벌 자본세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본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종합토지과세, 종합금융과세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자본세’에 대한 설명이고, 핵심은 ‘글로벌’에 있다. 모든 나라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자본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 높은 나라를 피해 세율이 낮은 나라로 도망가는 회피자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³⁷⁾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은 인간의 의욕 자체를 상실케 할 수 있다. 공생주의는 개인의 소유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성향만을 뜻하는 주의는 아니다. 즉 개인 소유물은 개체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전체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체목적은 공동소유물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통해서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개인 소유물을 가지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인 소유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것인가이다. 공생주의에서는 ‘자기 분수에 맞는 정도의 적정소유’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며, 그 양과 질은 결코 동일하지는 않다는 의미다.³⁸⁾

그렇다면 인간의 양심이 모든 가치판단에서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Hegel은 Kant의 ‘순수 도덕성’ 또는 ‘개인적 도덕성’에 대하여, 그것은 공허한 형식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확신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egel은 Kant가 말하는 양심이란 ‘자기 내적인 절대적 확신’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확신으로서의 양심을 도덕의 준거로 삼는 것은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못지않게 자의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Hegel은 이러한 비판에서 순수한 주관적 확신을 도덕적 준거로 정하는 것은 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설령 자신은 양심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볼 때는 악이 될 수 있다.³⁹⁾ 이처럼 인간은 양심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Rawls는 합리적으로 숙고하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⁴⁰⁾

한편으로 Sandel은 Rawls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로 인간자아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과 문화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결코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목적들에 의해 일정부분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⁴¹⁾ 공생주의와 Sandel

36) P. Chaccopadhyay, “On the Question of Soviet Socialism” *Science and Society*, vol75, No.1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Inc., 2011), pp.107-114.

37) 토마 피케티, 장경덕 역, 『21세기 자본』(과주: 글항아리, 2015), 659-665쪽.

38)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767-768쪽.

39) 신황규, 「칸트의 도덕교육론」 『윤리교육연구』제3집(서울: 한국윤리교육학회, 2003), 206쪽.

40)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3), p.269.

의 공동체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함께 개인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공생주의에서 개인적 소유의 양과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심에 의한 적절한 분배’에 둔다고 하는데, 공생주의에서의 양심은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참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관적 이기심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공영주의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방향은 주관성완성 교육으로 만인이 참여하여 양심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공동정치’의 실현에 중점을 둬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민(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과연 실현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왔지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 천재교육의 실패를 초래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인민)들에게 정치적 양극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 무관심과 소외를 초래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결함 때문에 Marx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집권층이나 부유층을 위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일 뿐 인민대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고발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한 공산주의야말로 참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⁴²⁾ 그러나 Marx는 ‘공산주의 당 선언’(1848)에서 자본주의의 문명화·세계화 과정을 동질적·단선적으로 파악했는데, 실제적인 자본주의 세계화 과정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양극화 과정이다. 오늘날도 이러한 양극화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발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확대가 되고 있다. 즉 세계화의 과정에서 주변부의 아동노동, 최소한의 사회보장의 부재, 비위생적 주거환경과 같은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공영주의는 만인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치’를 제시한다. 공동정치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민주주의 선거에서의 각 후보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를 하는데 비하여, 공동정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가정적 형제자매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② 민주주의의 후보자들은 자의에 의한 출마를 하는데 비하여, 공동정치는 형제들의 추천에 의한 출마를 지지한다. ③ 민주주의 선거는 막대한 선거비와 부작용이 동반하는데 비해, 공동정치는 기초단계에서 간략한 투표방식을 거친 후에 엄숙한 기도와 의식이 수반되는 추천방식을 지향한다. 이처럼 공동정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시하고 ‘형제를 위한, 형제에 의한, 형제의 정치’로 천부주의를 중심한 형제주의 정치다. 여기서의 형제란 어떤 지역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사해동포주의를 뜻한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사해동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락성을 벗고 창조본연의 원리적인 삶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41) M.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3), p.59.

42)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771쪽.

43) 정성진, 「1848년 ‘공산주의 당 선언’의 현재성」 『역사비평』제44집(서울: 역사비평사, 1998), 226-234쪽.

44)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776-777쪽.

셋째, 공의주의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방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완성’에 대한 교육으로 선민을 양성하여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고, 건전한 공동윤리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둬으로써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⁴⁵⁾ 공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교육내용은 3대주체사상(三大主體思想)⁴⁶⁾에 의한 교육이다. 다시 말해, 공의주의 사회의 2가지의 특징으로, ① 사회생활은 3대주체사상에 의한 3대주체의 참사랑운동에 의해 운영되므로, 빈곤과 같은 불평등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의 참사랑으로 곧 사라진다. ② 공의주의 사회의 기본 단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제2축복인 가정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중요한 것이며, 가정에는 4대격위(四大格位)가 있는데 조부모, 부모(부부), 형제자매, 자녀의 위치 등이다. 이 4대격위 사이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수수(授受)되는데 조부모의 사랑, 부모(부부)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다. 이러한 가정을 터로 한 정치·경제·사회가 바로 공의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⁴⁷⁾

이처럼 공의주의가 지향하는 역할과 방향은 자유주의적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는, ① 개인의 가정화를 지향한다. 즉 개인완성을 통한 가정의 완성은 물론 가정을 통한 개인의 완성도 수수의 관계로 성취하고자 한다. ②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는 가정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의 터에서 가정공동체성을 사회화한다는 의미다. ③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성 평등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즉 가족 구성 간에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의 우위성을 결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심정과 사랑을 통한 관계의 평등을 추구한다.⁴⁸⁾ 그러므로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를 터로 한 공의주의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 가치로서 불평등한 구조는 발생될 수 없다.

공의주의에 대한 교육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행복’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공동윤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각 개인이 모종의 노력을 투입하여 ‘행복한 삶’(happy life) 또는 ‘잘 삶’(well-being)을 목표로 한다. 교육도 인간의 생활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행위다. Sandel은 ‘좋은 삶’, ‘정의’, ‘윤리성’과 같은 덕목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 전통, 규범 등을 중시했다.⁴⁹⁾ 다시 말해, Sandel은 정의에 있어서 공동체의 좋은 삶, 또는 공동선이 정의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정의가 좋은 삶을 추구하는 윤리

45) 통일사상연구원, 위의 책, 780쪽.

46) 3대주체사상은 3개의 중심 즉, 가정의 중심인 부모와, 학교의 중심인 스승과, 주관의 중심인 관리책임자(사장, 단체장, 국가원수 등) 등의 3대주체가 하나님 참사랑으로 각각의 대상인 자녀, 학생, 종업원(국민)에 대해서 무한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47)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785-799쪽.

48) 김항제, 「통일교 정치사상으로서의 공의론(共義論)」 『신종교연구』제24집(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1), 171-174쪽.

49) J. Rawls, *A Theory of Justice*, 김영철 역, 『정의론』(서울: 이학사, 1999/2012), 65쪽.

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⁰⁾ Sandel의 정의론은 옳음이 좋음에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는 좋음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의주의도 Sandel의 정의론과 같이 좋음에 대한 공동윤리를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의주의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책임분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어느 정도 담지하고 있다.

IV.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육적 함의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양극화 현상은 비단 사회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윤리적·정치적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제1, 2, 3축복을 위한 교육으로 인격자, 선민, 천재를 기르게 되면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인류대가족주의적 공생공영공의주의 교육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공생공영공의주의로 복귀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모든 인류가 소원하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이며, 과거 사탄의 유혹에 빠진 에덴동산(창세기2:8-13)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⁵¹⁾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은 지구상에 공생공영공의주의 정착으로 전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의 실현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한 가정연합의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생주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개체(개성)완성 교육을 통하여 모든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동소유와 평화의식을 담을 수 있는 사상이므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가정연합은 2015년에 세계선학평화상을 제정하여 지구온난화와 식량증산 등 인류복지에 헌신한 수상자에 대하여 단일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만 불의 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사업은 종교단체로서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나눔의 실천으로 공생주의적 경제를 실천하고자 한다.

둘째, 공영주의는 하나님의 주관성완성 교육을 통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천재가 되고, 만민의 참여로 양심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공동정치를 실현케 하므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케 하는 사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정연합은 2007년 뉴욕 맨해튼센터에서 세계 192개국 대표로 구성된 ‘아벨 유엔 창설대회’를 개최했으며,

50) 원준호, 「정의론의 행정학적 함의: Michael Sandel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제2호 통권29호 (서울: 정치정보학회, 2011), 39-42쪽.

51) 정시구,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비밀』(서울: 국학자료원, 2013), 356쪽.

52) <72개국 2000여명에 장학금 100억, 원모평애재단 4기 수여식, 국내 10대 종단에 첫 장학금>, 《세계일보》, 2016년 2월 14일자, 제1면.

이후 매년 초종교·초국가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 창설된 유엔은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국익을 위한 각축장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의 핵심적 개혁은 상원과 하원의 양원체제로 하고, 하원이 현재와 같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며, 상원이 초종교적인 대표들로 구성하여 평화에 관한 근본 문제를 논의한다.⁵³⁾

셋째, 공의주의는 하나님의 가정완성 교육을 통한 선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류대가족’이라는 전 인류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므로 윤리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케 하는 사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연합은 ‘국제축복 결혼’을 통하여 초국가·초종교·초문명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난 6000쌍 국제축복 결혼식(1982.10.14)에서는 85개국에서 온 선남선녀들 중 499쌍이 다문화가정이었다. 이후 88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한일가정을 중심한 18개국에서 온 선남선녀 6500쌍의 국제축복 결혼식이 거행됐다. 또한 1992년 3만 가정 국제축복결혼식에는 131개국에서 선남선녀가 참여하였는데, 2793쌍의 한일가정, 일본과 아프리카 국제가정도 약 200가정이 탄생했다. 그리고 1995년 36만 쌍 국제축복결혼식 이후에 동남아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다.⁵⁴⁾ 오늘날 가정연합의 국제축복결혼식은 지구촌 가정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공의주의 사상의 열매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본격적으로 출현케 한 도화선이 됐다.

끝으로 공생공영공의주의를 통하여 양극화 현상 극복에 있어서 교육학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오로지 교육학적 방법으로만 양극화 현상 극복을 할 수 없지만, 우리사회의 분배정책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행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관련하여 교육학적인 함의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생공영공의주의 교육은 하나님의 3대축복과 함께 개인의 책임분담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사상을 담지하고 인류대가족주의 공동체를 주창한다. 앞으로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공생공영공의주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3)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파주: 김영사, 2009), 382-383쪽.

54) 이길연, 「다문화사회 문선명 선생의 다문화평화주의」 『평화학연구』제16권 1호(서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261-267쪽.

참고문헌

- 곽미숙.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성찰」, 『신학논단』 제59권, 서울: 연세대학교신학과대학, 2010.
- 김동원. 『노동양극화: 일자리 격차와 노동개혁』 서울: 국회도서관, 2015.
- 김성건. 「IMF 사태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개신교의 대응: 보수교단의 빈곤문제와 양극화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제』 제56권,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 .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8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 김항제. 「통일교 정치사상으로서의 공의론(共義論)」, 『신종교연구』 제24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1.
- 남태욱. 「자유와 평등의 기독교 사회윤리적 함의: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정의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2권1호,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7.
-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파주: 김영사, 2009.
- 선혜영. 「평등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의 분배의 문제」, 『종교문화학보』 제9집, 경주: 한국종교문화학회, 2012.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신항규. 「칸트의 도덕교육론」, 『윤리교육연구』 제3집, 서울: 한국윤리교육학회, 2003.
- 유승무·임운택. 「사회불평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불교적 정당성」, 『동양사회사상』 제23권, 서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1.
- 이길연. 「다문화사회 문선명 선생의 다문화평화주의」, 『평화학연구』 제16권 1호, 서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 이재일. 「통일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이찬수. 「탈폭력적 폭력: 신자유주의 시대 폭력의 유형과 종교」, 『종교문화연구』 제23호, 서울: 한신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4.
- 정성진. 「1848년 ‘공산주의 당 선언’의 현재성」, 『역사비평』 제44집, 서울: 역사비평사, 1998.
- 정시구.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비밀』, 서울: 국학자료원, 2013.
- 조기룡.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교단의 역할: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제19집, 서울: 대각연구원, 2013.
- 조상식.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교육학적 서평: 세습자본주의의 도래와 교육 불평등의 디스토피아」, 『교육비평』 제34집, 서울: 교육비평, 2014.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역, 파주: 글항아리, 2015.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14.
- 허유선. 「칸트 윤리학의 행위자 중심성과 공동체 윤리로서의 효력」, 『철학사상문화』 제19호,

- 서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5.
- 황봉환. 「아모스 시대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종교적 정의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1권 제4호, 서울: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3.
- Chaccopadhyay, P., “On the Question of Soviet Socialism” *Science and Society*, vol 75, No. 1,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Inc., 2011.
- Groome, 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Story and Vision*,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 1980.
- Harvey, D., *The Enigma*, London: Profile Books, 2010.
-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3.
- ,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 *A Theory of Justice*, 김영철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1999/2012.
- Rimlinger, G. V.,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New York: Wiley, 1971.
- Ryu, Jong Seong,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Korea, Taiwan and Philippines Compared*, 김재중 역,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서울: 동아시아, 2006/2016.
- Sandel, M.,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8.
- 《세계일보》, <72개국 2000여명에 장학금 100억, 원모평애재단 4기 수여식, 국내 10대 종단에 첫 장학금>, 2016년 2월 14일자.
- 《세계일보》, <온몸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방치, 생모에게는 “실종됐다”>, 2016년 10월 4일자.
- 《연합뉴스》, <한국, 경제규모 2015년 세계 11위→2030년 세계 7위>, 2015년 12월 27일자.
- 《이데일리》, <고개드는 양극화, 노인 소득절벽 어찌나>, 2016년 8월 22일자.

원고접수일 : 2016년 11월 17일 심사일: 2016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5일
연구자소개: 정시구

① 전공: 정치사상, 조직관리학 / 소속: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② 관심영역: 정치사상, 평화학연구, 종교철학, 조직관리

③ 주요논저: 「R. M. Hare의 행위·규칙공리주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정책」, 「통일사상과 칸트의 미의 판단 차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④ E-mail: jsg9277@hanmail.net

Abstract

Role and Direction of Education for Resolving Polarization Problems as Multilayeral Approach for Ideals of Co-living, Co-righteousness, and Co-prosperity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Jeong, Sigu

Sun 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role and direction of education in overcoming Korea society's polarization as multilayeral approach for ideals of co-living, co-prosperity, and co-righteousness in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Now, the most serious problem of our society's polarization is proceeding complexly from social-economic polarization to ethic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But, neo-liberalists criticize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costs could aggravate the economy investment and the people's independence. If only neo-liberalists are our society for market capitalism, the final role of government is very limited way to ensure only the relief of failure people except for resolving polarization problems. In religious education, it should be shown ways to propose reform recommendations by acknowledging as ethical political problems of our society community about polarization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polarization in these problem, the educational implication from ideals of co-living, co-righteousness, and co-prosperity in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can provide as follows. First, co-livingnism is a ideology to overcome a economical polarization with common ownership and peace consciousness through education of God's true love for the perfection of individual character. Second, co-prosperitism is a ideology to overcome essentially a political polarization with community polity's realization which will open to the age of conscience sovereignty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people through education for the perfection of a human being's dominion over the natural world as God's blessing which makes all mankind to be

geniuses, and to resemble a creativity of God. Third, co-righteousnessnism is a ideology to overcome a ethical polarization with order of the love of God and all mankind's collective goal pursuit as 'a large family of mankind' through God's chosen people education for the perfection of family. Finally, through ideals of co-living, co-righteousness, and co-prosperity, we will contribute to expand a pedagogical horizon in resolving polarization problems.

Key words: Co-livingnism, Co-prosperitinism, Co-righteousnessnism, Polarization,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